보성군 "주민 힘 모아…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꾼다"

'보성600' 참여 사업 브랜드화 문화·복지·소통·클린·안심·산림 600개 자연마을 주도적 참여 올 전남 3000여개 마을로 확대

'산림600' 사업으로 김철우 보성군수가 소규모 공원 나무 식재를 하고 있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이 마을 주민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터전을 가꾸는 주민 참여형 사업을 시도해 관심이다.

보성군은 민선 7기부터 역점 시책으로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후속작으로 '소통600', '문화600', '복지600', '클린600', '안심600', '산림600' 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우리 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은 보성에 있는 600개 자연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을 가꾸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였던 곳은 보성600 사업으로 꽃밭이 조성됐고, 비행이나 범죄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벽화가 그려졌다.

주민들은 마을 앞 공한지에 두릅, 해바라기, 작약 등 소득형 작물을 심으며 소속감과 연대감을 키워갔으며, 득량면에서 마을 공동 소득 작목으로 심은 두릅은 '보성 두릅 축제 한마당'이라는 소규모 마을 축제가 됐다.

보성600 사업은 마을 공동체를 부활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사업으로 의미를 인정받아 전남도에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돼 22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2024년 한 해만 전남도 3000여 개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총 8000여 마을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항목별로 '소통 600'은 군수 직통번호(010-5438-0600)로 생활 민원이나 정책 제안, 불편 사항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군수가 직접 확인하고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48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처리 결과를 안내하는 소통 창구다.

지난 7월 22일부터 시행한 '소통 600'은 80일 동안 총 250건의 문자가 접수됐다. 그중 생활민원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 및 복지 관련이 뒤를 이었다.

현장 조치가 필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해결 방안을 찾았으며,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상세히 설명해 군민의 이해를 도왔다.

군민의 일상적인 궁금증에도 성심껏 응대하며 신뢰를 쌓고 있다.

'보성군 SNS 캐릭터 인형을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와 같은 단순한 문의도 정성껏 답변하며 군민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소통600'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성 군정에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로, 최근에는 신속하고 빠른 민원 해결에 감사·칭찬 문자도 늘고 있다.

문화 600의 '인생 한 컷'은 보성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전시함으로써, 보성군의 인적 문화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생 한 컷 전시회는 '세월을 담다, 보성을 닮다'라는 주제로 11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보성군 봇재에서 개최되며, 전시된 작품들은 이후 각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섬 소리 여행'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은 보성군의 가장 큰 유인도인 장도를 찾아가 전통 국악 공연을 선보이며, 서편제의 본향답게 주민들에게 전통 소리와 예술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철우 군수는 "보성600 사업은 주민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로 할까,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필요로 하는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만들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모든 군민이 '보성 살기 참 잘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광양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포럼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포럼이 광양시에서 열린다.

광양시는 오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포럼'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광양시가 공동 개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기조 강연은 홍유식 INI R&C 대표이사, 김기현 한국환경공단 부장, 이고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박사, 우중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센터장 등 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들이 맡았다. 이들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최신 동향과 기술 혁신을 공유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뒤에는 패널 토론이 이어진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손정수 박사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곽부영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장, 이화영 광양시 미래산업국장,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 박주황 포스코HY클린메탈 부장, 박경덕 SK에코플랜트 팀장이 기조강연에 나선 전문가들과 관련 정책과 기술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시는 국내 유일의 이차전지 소재산업 전주기 공급망을 갖춘 도시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의 선도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올 가을 지리산 둘레길 함께 걸어요"

25일부터 구례 지리산 일원서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등

구례군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구례군 지리산 둘레길 일원에서 제5회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와 2024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산림청과 지리산권역 6개 시·군(구례·남원·하동·산청·함양·장수) 주최로 아시아지역 트레일 단체들의 교류 확대와 걷기 문화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25일 더케이지리산 가족호텔에서는 아시아 트레일즈 전문가 토론회가 열린다. 실상사 도법스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가 숲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민관협력 정책, 다양한 숲길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주제를 놓고 한국을 비롯한 미국, 일본, 대만 등의 숲길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또한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김순호 구례군수 등 지리산권 6개 시군 시장·군수가 함께 지리산권 숲길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사)숲길, 아시아 트레일즈 네트워크(ATN) 주관으로 트레일 애호가들과 지리산권 지역민 등이 함께하는 지리산 둘레길 걷기 축제가 열린다.

걷기 축제는 구례 지리산역사문화관에서 출발해 구례읍 서시천체육공원에 도착하는 3개 코스로 진행된다.

27일에는 지리산권역 6개 시·군 주민이 직접 발굴한 코스인 천은사 상생의 길을 함께 걸으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아보는 지리산 숲길 탐험대가 운영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구례에는 지리산 둘레길을 비롯해 백의종군로, 조선수군재건로, 300리 벚꽃길, 견두산 숲길 등 많은 명품 숲길이 조성돼 있다"며 "이번 행사가 구례의 아름다운 길과 관광 자원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여수시가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시(市) 부문 '최우수상'과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청 관계자가 기념촬영에 나섰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대한민국 SNS 대상' 9년 연속 수상

여수시가 '2024 대한민국 SNS 대상' 기초지자체 시(市) 부문 '최우수상'과 관광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9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대상을 수상한 것은 첫 사례로, 76개국이 참여한 전국 지자체 최초의 '여수 국제 웹페스트' 흥행과 시기에 맞는 여행지 소개, 제철 음식을 활용한 콘텐츠로 시민·관광객과 꾸준히 소통한 결실이라고 자평했다.

여수시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활용해 시 공식 채널인 '여수이야기'와 관광 전문 채널인 '힐링여수야'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민 참여형 'SNS 서포터즈'를 운영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행사와 여수의 숨은 명소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영미권·중국·일본 등 해외 SNS 매체를 통해 관광·마이스(MICE) 산업을 소개하며 외국인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60초로 즐기는 여수, 숏폼 공모전'을 개최해 차별화된 콘텐츠로 여수를 홍보하며 SNS 내용과 질, 스토리텔링, 활동성, 의사소통성 등 심사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명 시장은 "SNS를 통한 정책홍보 노력의 결실로 2관왕을 차지하게 되어 기쁘다"며 "민선 8기 시정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소통과 화합인 만큼 SNS 채널을 더욱 활성화해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내일까지 서울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노원구 중계근린공원서

고흥군은 19일까지 서울 노원구에서 고흥 농·수특산물을 만나 볼 수 있는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올해로 8번째 개최되는 직거래 장터는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노원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중계근린공원에서 열렸다. 고흥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직거래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고흥군은 이번 직거래장터에 29개 업체가 참여해 유자, 석류, 쌀, 김, 미역, 다시마 등 150여 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2030년 고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관련 다양한 시책을 홍보하는 부스도 함께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 장터에 참가한 업체에서는 장터 개장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고흥 특산품 50여 제품과 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이 물품은 노원푸드뱅크 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고흥군 조대정 부군수는 "앞으로도 자매도시 노원구와의 협력을 통해 직거래장터를 확대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장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